

일주일

멘토님께

아리쌤♥나리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짱 입은주에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멘토일도 진행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떨리고 긴장도 있고 막 온 생각이 다 들었는데 막상 진행해보니까 오히려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정환 ~~한글~~ 가쁜비집'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방정환 선생님의

이름(성함)을 따서 지은 거라 그런지 매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기대이상으로

매우 재밌었어요! 특히 그 텃밭에 있는 집? 그런데에서 저희 짱 멤버들! 그림을

그린것과 곰동이와 논 것이 매우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책과 식물의

씨앗과, 빛지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는 멘토님께 해드린거 많아 없는데

저희에게 잊지못할 추억이 될거에요! 그리고 이번 희망공정여행은 제가 총 여행을

15번 갔는데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경주갈 때 꼭 들러서 아는체 할거요! 반겨주세요 ~ ♥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 광주짱 입은주 월급 0



1방정환 한울'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짱 장지혜 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어린이집에 갔을때 너무 좋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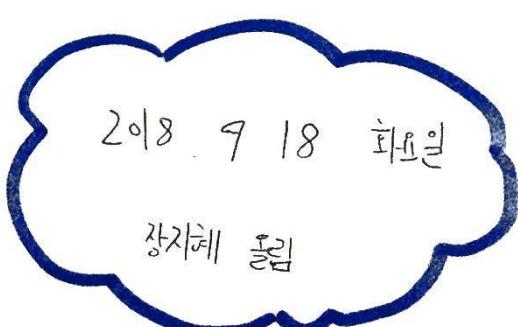
왜냐하면 옛날 방식으로 꼬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이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해보니까 재미있었고, 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금동이도 함께 있어서 어린이집의 분위기가 정말 화목한것 같아요. 나중에 경주에 놀러 가면 꼭 다시 봄고 싶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금동이

안녕하세요 멘토님

2018.0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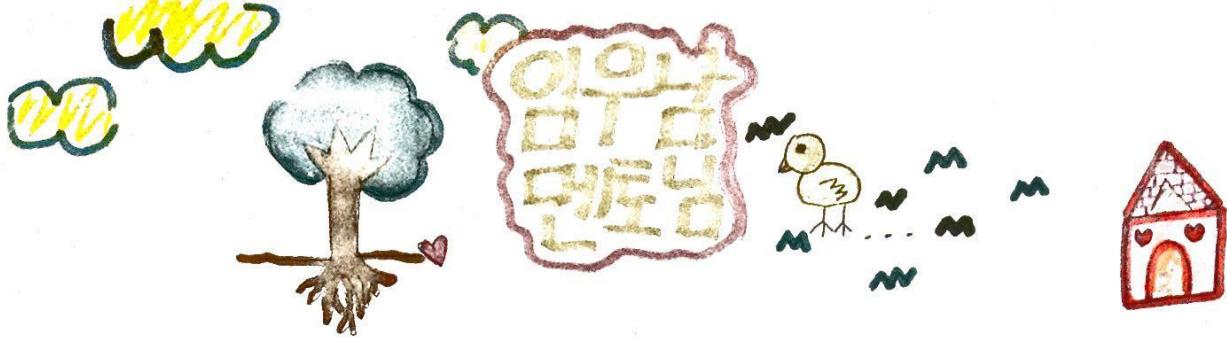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양다현이라고 합니다. 저번 멘토열도를 다녀와 정말 배운것과 얻은것이 많아 편지를 씁니다. 농마에게도 자장한만큼 좋았던 멘토열도였네요. 처음에 와서 금정을 하는 모습에 어색했지만 컵에 물을 따르면서 적응했고 그 이후에는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어요. 허우한 놀이터까지 가서 그림도 그리고 많은 추억을 남기고 왔어요. 저녁에는 낭지분야인 줄 알고 어려신분인가 했는데 괴전에 조사할 때 여자분이시고 손에 상가신 인상에 첫인상부터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잊을 수 없는 분이라 더욱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바라는 일 해시길 바라세요 ③



2018.09.18

양다현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가꾸는 짱. 임민지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알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나를 사랑해야 남을 봐줄 수 있다는 말에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보려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어린이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꼭 꿈을 이룬다면 위아래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

말씀 듣고나니 이 직업을 정말 할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된다면 찾아뵙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요. 이번 여행은 소중했던 최고의 여행

이였어요.♡

2018.9.18



=3 =3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짱대표 양자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개 받은 분이 한분이었는데 두분이어서 좋았어요. 두분다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셨구요. 내면의 평화를 찾으신 분인거 같은? 이런 이집에서 풍족을 하고 육을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울 왜 그러지? 정말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분이 저희 대한민국에 있어서 더욱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0 정말 안타깝고 힘든 현실인거 같아요! 그리고 유치원 뿐만아니라 여기를 졸업한 아이들을 여기서 놀기도 하고 농사일도하고... 저도 6학년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이런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었는데 그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과 시간이 됬을거고 많은 자연과 교감해서 터 좋았을거예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2018. 9. 18

양자현

임우남, 최경미 멘토님

나리, 아리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방문한 세상을 가꾸는 장
장자혜라고 합니다. 저는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게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멘토님의
어린이 집에서 하는 맑은 물, 새날 열기라는 프로그램이

인상이 깊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킴이인 금동이도 함께여서 더 아이
들이 재밌게 공부할 것 같아요. ~~마중에 경주에~~
~~가게 도면 다시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텃밭 책
놀이터에서도 정말 재미 있었어요. 저의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너무 재미 있었고, 아이들이 그런 흙심을 만든
것도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책도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희망공정 여행중 가장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방정환
인물

2018년 9월 18일

장자혜 올림

최경리 멘토님께 ^

나로이 ❤️ 나로이

안녕하세요? 최경미 멘토님, 저는 광주짱 임은주에요. 저는 처음에 '임우남' 멘토님만 봐는 줄 알고

'최경미' 멘토님에 관한 질문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임우남' 멘토님께 던진 질문에

보통 답까지 해주셔서 저희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텃밭 책 놀이터에 가을 때

그림도 그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하게 벽에다가 그리고 싶었던 마음은 없지 않았는데

막상 그림이 되니까 실수를 봐도 고장했어요. 막상 그림이 완성되니까 좀 뿐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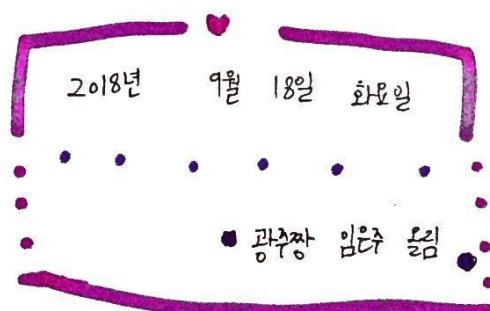
또 살구차도 주시고 아이들이 만드는 집도 보고, 직접 키우시는 식물도 보여주시고

저에게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거에요! 멘토님께서 주신 뱃지

캐릭터도 너무 개성있고 귀여웠어요! 앞으로 다른 희망공정여행을 갈 때 그 뱃지를

하고 다닐거에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텃밭 책 놀이터





안녕하세요 최경미 멘토님. 저는 임민지입니다. ~.
이번 여행은 너무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희망
이기도 하고. 멘토님이 웃어주시는 모습이 따뜻해 보이셨고
아이들을 놀라주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셔서.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것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멘토님이 아이들을 위해 텃밭을
가꾸고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이 저는 정말 멋져보였어요.
저도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 보아야
겠네요. 그리고 멘토님이 주신 선물. 예쁘게 심을게요.
감사합니다.

[2018.9.18.]

임민지 올림